

편 집 후 기

김건형 : 벌써 또 6건의 원고를 채웠다. 내년 원고는 이제 무엇으로 채우나...

김동욱 : 지난 1년은 어찌다 보니 몇번 결석했습니다. 편집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연말을 보내세요.

김승현 : 정신없이 2년이 지났네요.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인연을 얻었습니다. 유 박사님, 조 박사님, 수고 많으셨습니다.

박재형 : 처음 편집활동 하면서 좋은 분들과 연을 맺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2009년 한해를 수고해 주실 새로운 편집위원님들, 같이 노력해 보시지요.

양성운 :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은 한해였습니다. 유재웅 박사님, 조준한 박사님, 편집회의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모든 편집위원님들!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건승하시길...

유재웅 : 지난 2년 동안 기술지 편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조준한 : 함께 편집활동을 해주신 편집위원들과 흔쾌히 원고섭외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. 편집을 거쳐 나온 원고가 인쇄되어 우편으로 학회지를 받아볼 때마다 느끼는 보람이 편집활동의 가장 큰 재미가 아닌가 합니다. 계속된 발전으로 고분자과학과 기술지가 회원분들의 더욱 큰 사랑을 받기를 희망합니다.

표승문 : 특집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다. 내년에도 편집위원 모두 건강하세요.

한관수 : 그동안 함께 한 편집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보다 수준높은 기술지가 되길 기원합니다.



김건형



김경곤



김동욱



김상욱



김승현



박재형



양성운



유재웅



윤근병



인인식



정일두



조준한



진병두



표승문



한관수